



광남일보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라이브커머스'

전남신보, 9월까지 20개 업체 편축 지원

6



슬로시티 완도, 국제사회 관심 집중

19~22일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8



광양 '구봉산 숲 속 야영장' 개장

일품 오선류...체류형 관광명소 도약

9



전남대병원, 아·태 '최고 전문병원' 선정

종양학·소아과 분야...“세계적 병원으로 성장”

13

조간 제7862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음력 5월 18일)

스마트팜 도입·공동출하·산지유통센터 운영까지

'1농협 1대표사업', 농촌경쟁력 키웠다

고흥군 포두면에서 오이 농사를 짓는 명현호씨(50)는 올 들어 새벽잠에서 해방됐다. 냉기를 막기 위해 매일 새벽마다 비닐을 걷고 물을 주던 수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명씨의 비닐하우스에는 온·습도 센서, 자동 관수 장치, CCTV, 통합제어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팜 설비가 갖춰져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생육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앱을 통해 온도와 습도 조절은 물론 급수까지 제어할 수 있다. 그는 “예전에는 날씨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하우스를 오기야 했는데, 지금은 앱 하나로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며 “수확량도 20~30% 늘어난 것 같아”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농기계 교체를 넘어 농업 구조 전반을 혁신하려는 ‘1농협 1대표사업’의 성과다. 전남 144개 농·축협이 각 지역의 특성과 조합원 수요에 맞는 대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는 현장 중심 농정 모델로, 농협 전남본부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1농협 1대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사진은 육성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직원들이 멜론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전남본부, 전국 최초 도입…144개 농·축협 참여

중앙회·경제지주·지자체 협업 ‘농정 모델’ 구축

안정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 ‘복지·지원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체계화했다.

특히 전남본부는 중앙회, 경제지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자금·기술·유동 등 사업 전반에 걸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육성형 대표 사례로는 고흥 흥양농협이 꽂힌다. 흥양농협은 오이 재배 농가 60곳에 스마트팜 설비를 도입했다. 총사업비 3억3000만원 가운데 고흥군이 50%, 농협경제지주가 40%, 나머지는 농협과 농가가 각각 5%씩 분담했다. 원격 제어가 가능한 ICT 설비를 통해 노동력 부담은

줄고, 생육 환경이 표준화되면서 수확량과 품질이 모두 향상됐다. 수확된 오이는 모두면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공동 출하되며, 유통 구조 개선에 따라 조합원 수취가 격도 안정되고 있다.

같은 유형인 곡성농협은 고품질 멜론 스마트단지를 조성해 ICT 하우스에서 멜론을 재배하고 있다. 정밀 생육 관리 덕분에 품질과 수확량이 표준화됐고, ‘곡성 프리미엄’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2면에 계속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민주·혁신 ‘3대 특검’ 후보 6명 추천

조은석·민중기·이윤재…한동수·심재철·이명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검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법무부 검찰부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국장(김건희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김건희 특검), 이민기 전 국방부 검찰부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부장(김건희 특검)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중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밝혔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교수 각각 추천됐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3대 특검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검찰부장(내란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부장(김건희 특검), 이민기 전 국방부 검찰부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부장(김건희 특검)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두 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 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 임명해야 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공천률

‘호남 특수성’ 반영 유력

국민참여경선 비율 변경

새 대표 기획단 꾸려 확정

쳤지만 확정 짓지 못한 과제들도 많다”고 말했다.

혁신단은 시도당위원장 사퇴시한은 기준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는 안을 당무위 의결에 부쳐 지난해 10월 확정했다. (당규 32조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선거일 240일 전까지 시·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신 의원은 혁신단에서 논의된 호남 경선률 조정과 관련해 “지역민은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당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후보가 민의에 부합되지 않는 사태는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당원 표심 반영 비율을 낮추고 국민 표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했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이와 관련해 “호남의 경우 국민참여경선에서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표심 반영 비율을 80%로 늘리고, 권리당원의 반영비율을 20%로 조정하는 안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구체적인 반영비율은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에서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류는 호남은 민주당 지지도가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데도 지방 선거를 앞둔 당 경선에서 민심과 괴리가 있는 후보자가 선출돼 결국 본선에서 민주당 웃을 입고도 낙선하는 사례가 반복하기 때문이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30% 안팎에 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혁신단 위원으로 참여했던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퇴시한을 늘리고, 각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국민 참여경선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공천률 혁신안을 논의했다”며 “그 중 일부는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

수도권은 선거 때마다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51대 49까지 균형해 불과 5% 내의 박빙의 승부가 많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에서 계속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광남일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한 2025 학교폭력 예방 토크 콘서트

일시 2025. 6. 19.(목) 14:00~16:00

장소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대강당 (광주 북구 능안로 30번길 5)

주제 1부 - 표창원 작가 강연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및 권한 강화’

2부 - 표창원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대상 초중고 교원 및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